

중국 국민의식의 세계화 수준에 대한 비교분석: 한·중·미·일 4개국 '새천년발전목표'(MDGs) 인식을 중심으로

서운석*

- I. 서 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분석
- V. 결 론

본 연구는 '새천년발전목표'라는 분석대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중국 국민들의 세계화 수준에 관한 국민의식을 한·미·일 등 국가의 국민의식과 대비하면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식은 세계화 변수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가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국국민의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수준은 미국국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각국 국민인식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세계화가 먼저 진행된 미국이 그렇지 않은 중국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국민과 미국국민의 세계화 인식수준은 특별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계시민이라는 인식이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인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국가공동체로서의 인식은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새천년발전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세계화 관련 소속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문제에 대한 국가간 인식에 있어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중·미·일 4개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빈곤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지도자의 정책 우선순위 지지와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와는 통계적으로는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주제어 : 새천년발전목표, 세계화, 국민의식, 중국, 미국, 한국, 일본

I. 서론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유럽이나 중동을 첫 순방지로 택하는 전례를 깨고 한·중·일 등 3개국 방문으로 외교일정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3개국 순방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은 중국에 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순방에서는 중국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가 오바마 정부의 대아시아 외교의 중심이 될 것임을 밝히고, 세계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한겨레 09/01/15, 14).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에는 미국 유일의 세계질서였다면 이제는 최소한 미국이 중국의 양해와 협조 속에서 이전에 누리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1999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간 수준 국가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구나 신발 수출에 의존하던 중국의 위상은, 클린턴 행정부 하의 탄탄한 경제에 기반을 둔 '하이퍼파워' 미국에 비해 초라해 보였다. 이러하던 상황이 2001년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변화되어 갔다. 2001년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경제 본래도에 접속했고, 베이징 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무역규모가 급성장했고, 2003년부터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했다. 2007년 수출에서 전자제품 비중이 24.7%로 기술집약적 경제로 질적 변환도 시작했다(한겨레 09/01/02, 6).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로 중국도 수출이 급감하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국제금융질서 재편을 요구하며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 4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G2)의 양자회담이었다(한겨레 09/05/15, 46).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는 구도를 가리키는 이른바 'G2론'으로까지 불리기도 한다.

미국 국무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중·일 등 3개국을 선택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미국의 국제행보는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외교노선은 스마트파워로 표현되기도 한다.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군사력 등 경성권력)와 '소프트파워'(문화 등 연성권력)를 하나로 묶는 전략을 짜는 능력을 뜻한다. 주창자인 조지프 나이는 '스마트파워'란 고정된 물리적 실체라기보다는 '다른 이의 마음을 얻는 행태'와 관련된 분석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한겨레 09/01/15, 14). 즉, 최고강국으로서의 자질은 군사력 등 경성권력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리더십 및 비전 제시 능력 같은 '다른 국가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인 연성권력이 반드시 필요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그러면 이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로 떠오르는 중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담보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능력 중의 하나가 세계화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라고 본다. 국가의 영향력과 국민 의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념 사이의 간극은

소멸해야 하며, 세계에서 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결국 해당 국민의 인식수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을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으로 한정하여 분석해 보도록 한다.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본 연구는 '새천년발전목표'라는 분석대상 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중국국민들의 세계화 수준에 관한 국민의 식을 한·미·일 등 국가의 국민의식과 대비하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초대강국인 미국국민들의 인식수준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주요 경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국가 국민의 의식수준을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식은 세계화 변수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이와 같은 목적은 앞으로 강대국의 영향력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지도력이라고 보고, 현재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새천년발전목표'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 수준을 뛰어넘는 정부 없다'는 명제에 비추어 보면 '새천년발전목표'의 달성 여부는 관련국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들의 의식수준 자체가 세계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천년발전목표' 등 현재 국제현안에 대한 해결은 주요 강대국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데 있어서는 해당국가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당정부가 이러한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런 가정에는 중국과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영향력과 그 추이가 더욱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특히 중국국민들의 세계화에 대한 의식수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한·중 양국의 공동발전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이해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 빈곤감소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인류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혜택은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개도국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개도국 빈곤 및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현재 원조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DAC¹⁾ 회원국 중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비율 권고치인 0.7%를 충족하는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소수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사회 개발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집중과 선택'을 들 수 있다. 개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들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합의의 부재, 이러한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기한 설정의 부재,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는 총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분하지 못한 국제사회 개발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00년 9월 개최된 UN총회에서 전 세계 189개국의 지도자들이 채택한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합의하였는데 큰 의의가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4, 25-27). 새천년발전목표는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밋(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 이 회의에 참가했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⑦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http://www.un.org/millenniumgoals>).

〈표 1〉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목표(Goal)	세부 목표(Target)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2015년간 1일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 •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전세계 모든 아동의 초등교육 수혜 달성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서 성별간 차이를 초·중등교육에서는 2005년까지, 모든 교육수준에서는 2015년까지 제거
4	아동사망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2015년간 5세 미만 사망률 2/3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2015년간 산모사망률 3/4 감소

MDG	목표(Goal)	세부 목표(Target)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질병 발생 저지 및 감소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개발 원칙의 국가정책에의 통합 및 환경자원의 손실 보전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의 지속적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 • 2020년까지 최소 1억명 슬럼거주자 생활여건의 상당한 개선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에 기반하고, 예측가능하며, 평등한 개방적 무역과 금융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발전, 빈곤 감소에 대한 국내적·국제적인 공약 마련 포함 • 최빈국의 특별한 수요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무할당(tariff-and quota-free) 수출품 허가, 채무 과다 빈곤국(HIPC)의 부채경감 강화, 공식적 쌍무부채의 탕감, 빈곤 완화 노력국가에 대한 더욱 관대한 공식적 발전 지원 제공 등 포함 • 군소도서 저개발국들의 특수한 요구 주지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의 포괄적 해결 • 개도국과 협력,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전략 개발 및 시행 • 민간 제약회사와 협력, 개도국에 대한 필수 의약품 제공 • 민간분야와 협력, 정보통신 등 신기술 혜택 확산

자료 :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goals/index.htm>

현재 지구촌에서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은 12억명, 하루 3달러 미만 소득자는 무려 30억명에 이른다. 세계 인구의 1/7에 이르는 8억 5천만명 이상이 심각한 수준의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3초에 1명꼴로 10세 미만 아동이 굶주림과 충분히 예방가능한 질병 때문에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깨끗한 물한 잔과 위생시설이 없어 설사로 사망하는 아동이 연간 180만명이다. 한창 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 30%이고, 연간 50만명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다. 이처럼 고통받는 지구촌에 새천년발전목표가 달성된다면, 하루 1달러도 없이 생활하던 5억 인구가 절대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고, 3억명이 기아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 죽어가던 3천만 아동과 2백만 여성의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3억 5천만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얻을 수 있고, 6억 5천만명 이상이 기본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UNITED NATIONS 2008).

이 모든 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새천년발전목표 달성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공여국들이 GNI의 0.7%만 내놓아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액수는 전세계가 국방비에 쏟아 붓는 돈의 1/5에 해당한다. 새천년발전목표는 실현불가능한 계획도 아니고 부질없는 꿈도 아니다 (<http://www.undp.org>). 이제 뒷짐만 진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행태에서 벗어나 한국국민뿐만 아니라 관련국 모든 국민의 관심과 의지를 모아 행동할 때이다. 이러한 각국 국민들의 행동 중에는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지지의지를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하여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근본에는 당연히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새천년발전목표는 UN을 비롯한 국제개발 주체들에게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되었다는 점과, 수원국과 공여국 양측의 책임성과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의미

가 크다. 우리 정부도 새천년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ODA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증액할 것과 2010년 전후 DAC 가입 등 일련의 정책목표를 공표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 중에는 우리가 가진 성공적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개도국에게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한국형 국제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지원,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익 증진, 대개도국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구현 등 4대 전략목표 하에 협력대상국을 전략적으로 구분하고, 국별 원조정책 수립과 차별화된 원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6, 10).

2) 선행연구 검토

중국 국민의식의 세계화 수준에 대한 비교분석에 앞서 먼저 국민 의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관련 용어로 국민성(national character)이란 개념을 보면, 이는 한 사회의 확정적 현상은 아닐지라도 발생률과 분포가 뚜렷하게 어떤 사회를 다른 사회로부터 구별해 주는 비교적 지속적인 인성적 특성이나 문화적 속성, 또는 제도적 구성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고영복 2000, 60). 이에 대해 국민 의식(national attitude)이란 사회의식(social attitude)의 한 형태로서 특정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감정을 일컫는다고 하겠다(Hopkins 외 1999). 국민의식 연구영역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감정, 즉 자긍심과 애착, 소속감과 충성심, 그리고 우월감의 강도를 분석하고, 그러한 국민에 대한 감정적 몰입이 다른 가치지향과 행위 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려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Evans 외 2002).

국민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국민의식 연구는 차이성 존

재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식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단순히 모든 차이들의 공존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양승태 2007). 그리고 현실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국민의식 연구는 중요하며 문명충돌론의 핵심주제가 국민의식의 형성과 충돌에 있다고 해석하는 연구도 있다(홍성민 2002). 중국 국민의식과 관련하여 1997년 발생한 외환 및 금융위기 이후 중국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국민의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질서 속에서 중국형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김인춘 2004).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민의식에 대한 실증연구들에서는 국민의식 변화가 매우 복잡다기하다고 보고 있다(軒传树 2007). 현재 국민의식 변화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된 결과를 정리하면, 일원화된 가치관에서 일원화·다원화가 공존하는 상황, 집단주의 가치관에서 집단중심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이 융합·변형되는 상황, 이상주의 의식에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의식의 모색, 정신문명 중심에서 정신과 물질이 동시에 존중되는 의식의 변화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廖小平 외 2005; 徐贵权 2007). 그리고 장래 중국의 국민의식은 개방되고 포괄적인 국가정신, 조화로운 국민성 그리고 온건한 국가적 자부심 등과 같은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廖申白 외 1997; Wang 2007).

세계화와 국민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세계화가 개별 국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세계주의의 입장은 경제적 차원의 상호의존과 통합성을 증진하는 세계화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세계의식을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적 차원의 통합과 동질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국지주의의 입장은 세계화가 경쟁의 심화, 경제적 불안정의 증진,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등을 가져옴으로써 역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화에 저항하게 하고 개별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더욱 집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성경룡 2001). 이에 대해 세계

화를 지지하는 일반적 정당성으로는 그 이상(ideal)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며, 세계화주의자들의 이상은 ①세계 평화와 번영, ②인류의 자유와 해방, ③세계 민주주의, ④세계시장의 통합, ⑤무역의 자유화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김수희 2002). 세계화에 대한 중국 지식계의 논쟁을 보면, 신보수주의, 신마오주의, 신유교주의, 신좌파, 신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 등의 유파들이 존재하는데, 중국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보수주의자들은 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중국이 서구식의 자유화와 세계화에 지나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현재 중국사회의 문제점과 함께 중국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는 자유화나 세계화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비효율적인 제도와 규정들에 있다고 한다. 전자는 세계화로 인하여 중국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고, 후자는 세계화가 불완전하게 진행되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본다(고성빈 2006). 세계화와 중국문화와의 연계에 있어 세계화 물질은 이왕의 폐쇄와 무지를 효과적으로 타파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대동세계의 이상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고, 이러한 도정에 있어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유가화(儒家化)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유가사상은 하나의 개방적인 정신으로 외래문화와 정합(整合)하여 '화합하면서도 동화되지 아니하는'(和而不同) 특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사상은 천하대동(天下大同)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핵심은 세계경제 및 문화의 평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유있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사람을 도와줌은 하늘의 진리다'(損有餘補不足天之道也)라는 명제는 바로 세계화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말이라는 것이다. 즉, 유가사상이 세계화의 윤리가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高柏園 2002).

세계화와 함께 추구하는 주요 가치 중에서 국제협력 및 세계시민의식 등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먼저 해외원조의 의무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논의 중 해외원조의 의무에 대해 고찰한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윤리적 관점들이 해외원조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 구성원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부조 의무는 이방인이나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원조 의무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해외원조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손철성 2008). 세계화 현상과 관련해서 세계시민으로서 지니게 되는 정체성은 지역, 국가, 세계 간의 관계가 병렬적인 포함 관계 속에서 중층적으로 중첩되는 특성을 보인다. 국가화 또는 국제화 단계에서 단일국가의 법률적인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을 대신하여, 타인의 배려(care), 신뢰(trust), 책무(responsibility) 등과 같은 비계약적 가치(non-contractual value)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타인을 전제로 한 자기정체성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성으로서의 '규범적 행위'와 '인지적 판단형식'은 상호간에 매개되는 관련을 맺으면서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김왕근 1999). 그러나 국제협력의 가능성은 국가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지역적 편차로 인한 지역적 정체성의 결여, 역내 신뢰구축의 미비,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리더십의 부재, 특정 강대국의 영향력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변창구 2001). 세계화에 있어서 한국 경제성장은 경제도약의 시작단계에서 원조가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준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의 씨앗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의 해외원조에 의해 뿌려졌다고 볼 수 있고, 인프라·보건·교육의 핵심기반을 구축하는데 해외원조는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 한국은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s)을 시행한 선구자였는데, 이는 산업화 초기에 저기술 노동집약적 경제에서 고도기술 상품 및 제품 디자인 생산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롭고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보며, 새천년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빈국들에게도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은 경제발전의 선두 국가인 동시에 극심한 가난에 빠져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의 성

공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고 평가받고 있다(삭스 2006, 12-13).

세계화와 국민의식에 관한 실증연구 중에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을 파악해 본 연구를 보면, 세계시민의식은 '시민의식', '지구공동체 의식', '다국적 의식', '국가정체 의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4개요인들 중에서 일반적인 '시민의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지구공동체 의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세계화 현상을 반영하는 의식의 발달이 아직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시민의식 교육은 기존의 시민교육 차원을 넘어 세계화에 의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세계화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와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은림 외 2007). 시간과 공간은 인식의 기본범주로 중시되어 왔으며, 일본의 경우 국민 국가 성립과 교통통신 발전을 통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변화하여 왔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일본인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한경구 2004). 중국 국민들의 국제적 관점에 대한 인식 중 지리적 거리감 인식 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국에 대한 지리적 소속감도 동반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상수 외 2008, 79). 세계화의 정치(politics of globalization)를 분석하는 첫 단계는 정치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세계화를 어떻게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과 연계지어 인식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세계화와 국내 정치경제적 결과에 대한 연계고리들에 대한 논의 중에서 세계화가 개인적 수준의 경제불안을 초래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고용과 개인수준의 고용상태 평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보여준다. 세계화를 고용에 대한 위협이라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고용상태 평가가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르고

있었다(권혁용 2007). 세계화에 따른 후기산업화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족적 요인 보다는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민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Jones 외 2001).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민들의 관용성 인식에 관한 변화를 '외국인노동자 이주정책'을 사례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개혁개방이 진행될수록 중국 국민 사이에서 고용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포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박상수 외 2008, 78-79).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화와 국제협력력을 위한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분야는 세계화와 세계시민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분야로서, 특정 주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나 국가간 특히 동북아 국가간의 국제비교 연구는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국민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사회나 문화영역, 또는 정치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특정주제에 적합한 분석이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과 한계를 인정하는 선에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각국 국민인식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세계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즉, 중국국민의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수준은 미국국민들의 인식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각국 국민인식 수준은 세계화 관련 소속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넷째,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각국 국민인식 수준은 세계화 관련 문제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가정하에서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을 세계화에 대한 국민인식 측정변수로 설정하고, 중국과 미국을 주로 대비하면서 한국, 일본을 동시에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중국국민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새천년발전목표'(MDGs)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 수준을 유추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한국, 미국, 일본의 일반국민들에게까지 적용하여 이들 국가간의 국민인식 수준을 비교분석해 본다. 그리고 이런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제적인 시민의식조사 자료인 World Values Survey(WVS) 2005 데이터세트²⁾ 자료를 이용한다.

WVS 2005 데이터세트 자료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항목 중에서 새천년발전목표 인지 여부 등 8개 변수에 한정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원설문지 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서 재선정한 항목구성은 다음과 같다.

2) WORLD VALUES SURVEY 2005 OFFICIAL DATA FILE v.20081015, 2008.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www.worldvaluessurvey.org).

〈표 2〉 설문 분석항목

변 수	변수에 대한 설명	척 도	척도에 대한 설명
인지 경험	새천년발전목표 인지 여부	명 목	1=있음, 2=없음
국 가	국가가변수	명 목	1=한국, 2=중국 3=미국, 4=일본
소속인식			
세계시민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생각	4점 리커트형	1=전적으로 반대 4=전적으로 찬성
국가공동체	자신을 국가의 일부분으로 생각		
지역공동체	자신을 지역공동체 일부분으 로 생각		
독자적 개인	자신을 독자적 개인으로 생각		
세계문제 인식			
세계적 문제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심각 한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	명 목	1=빈곤문제 2=여성에 대한 편견 3=불결한 위생문제 와 전염병 4=불충분한 교육 5=환경오염
지도자 우선순위	국내 빈곤문제와 세계 빈곤문 제 중 자국 지도자의 우선순 위 지지	10점 리커트형	1=국내 빈곤문제 우선 10=세계 빈곤문제 우선

위와 같이 선정된 분석항목들은 다양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새천년발전목표 인지, 국가 등 변수들은 명목척도로 구성되었고, 소속인식이나 지도자 우선순위 지지 등의 변수들은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주어 연속변수화하였다.³⁾

3) 한 예로 '나는 내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생각한다'라는 명제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라고 답할 경우 1점을 주고, '반대'라고 답할 경우 2점, '찬성'이라고 답할 경우 3점,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답할 경우 4점으로 처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피설문자들의 참여행태는 다양했다. 즉, 각 항목에 대한 결측치 발생 행태가 사례별로 다양한데 이 분석에서는 항목별 결측치들을 모두 제거하고 실제 답변한 사례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런 이유로 각 항목에 대한 사례빈도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한·중·미·일 4개국의 국가별 표본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국가별 표본 현황

	빈 도	비율(%)	누적비율(%)
한 국	1,200	21.6	21.6
중 국	2,015	36.2	57.8
미 국	1,249	22.5	80.3
일 본	1,096	19.7	100.0
합 계	5,560	100.0	

2) 연구방법

국가가 사례로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숫자가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교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즉, 둘 이상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간 비교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동·서양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EBS 외 2008, 7). 이러한 경향과 현재 소위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양'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였고, '서양'에는 미국을 사례로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의 비교대상 국가는 4개국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분산분석, χ^2 검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분산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집단 평균치의 차이를 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분석방법이다(김은정 외 2002, 258). χ^2 검증은 명목변수나 서열변수의 형태를 띤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의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이용될 뿐

만 아니라, 두 변수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김호정 1996, 335).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종속변수가 2분변수인 경우에 사용된다. 주어진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를 예측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선형 회귀모형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선형 회귀분석이 주어진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주어진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의 두 범주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홍두승 2005, 299).

자료 분석 도구로는 SPSS를 사용하였고, 각 분석의 신뢰수준은 기본적으로 유의수준 $p < 0.05$ 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항목에 개별적으로 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분석

1) 국가별 새천년발전목표 인지 수준과 국가간 차이

여기에서는 한·중·미·일 4개국 국민의 세계화 수준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고자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인식 수준을 검정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기본가정은 세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인지비율 또한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국가별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여부의 χ^2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형태로 묻은 인지여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21.3%가 인지하고 있었고, 중국은 6.1%, 미국 4.8%, 일본 11.2%가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인지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일본, 중국, 미국 순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간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국가별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에부 χ^2 검정

	한 국	중 국	미 국	일 본	합 계
있 음	254	95	58	119	526
	21.3%	6.1%	4.8%	11.2%	10.4%
없 음	941	1474	1151	946	4512
	78.7%	93.9%	95.2%	88.8%	89.6%
합 계	1,195	1,569	1,209	1,065	5,038
	23.7%	31.1%	24.0%	21.1%	100.0%

$\chi^2 = 223.53$, $df = 3$, $p < 0.001$

다음으로 '새천년발전목표 인지'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국가라는 범주변수의 영향 비율을 예측해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범주형 변수인 국가변수를 더미 코딩하여 분석하였다.⁴⁾ 이 분석에서는 중국 국민의식의 세계화 수준을 주로 미국과 대비하고, 한국, 일본을 참조하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집단으로 하였다. 국가변수들은 중국, 한국, 일본의 일반국민들과 기저집단인 미국 일반국민들의 인지수준을 대비시키는 더미변수이므로 이 변수의 로지스틱 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는 미국 일반국민들에 비해 다른 국가 일반국민들의 인지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의 로지스틱 계수는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승산비⁵⁾ Exp(B)가 5.35이므로

- 4) k개의 범주 또는 집단을 더미코딩하는 경우에 k-1개의 더미변수가 필요하다. 국가에는 4개 집단이 있으므로 3개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k-1개의 집단은 해당 더미변수가 있지만 한 집단은 해당 더미변수가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집단을 기준집단이라고 한다.
- 5) 승산(odds)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p 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인 $1-p$ 의 비율을 말한다. 독립변수 X의 로지스틱 회귀계수(B)가 양수이면 이 변수는 로짓에 대해 정적(positive) 효과가 있는 것이며, Exp(B)도 1 보다 크게 되어 승산에 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만약 독립변수 X의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음수이면 이 변수는 로짓에 대해 부적

한국국민이 '새천년발전목표'를 인지하고 있을 승산은 미국국민의 인지 가능성보다 5.35배가 높다.⁶⁾ 일본의 경우에도 기준집단인 미국에 비해 2.49배 높은 승산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었다.

'새천년발전목표' 인지라는 대상에 한정하여 해석하자면 한국, 중국, 일본의 세계화 수준이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국민들의 세계화 인식수준은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5〉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와 국가변수와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B	S.E.	Wald	df	Sig.	Exp(B)
국 가			198.70	3	0.00	
국가(한국)	1.67	0.15	121.88	1	0.00	5.35
국가(일본)	0.91	0.16	30.35	1	0.00	2.49
국가(중국)	0.24	0.17	2.06	1	0.15	1.27
상 수	-2.98	0.13	492.97	1	0.00	0.05

-2LL = 3164.59, $\chi^2 = 207.42$, $df = 3$, $p < 0.001$

2) 국가별 소속인식 분석

여기에서의 분석 목표는 국가간에 있어 소속인식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가설은 국가별 평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별로 소속인식을 측정한 변수의 평균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국가공동체로서의 소속인식 보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세계화 수준이 높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추정한다.

(negative) 효과가 있는 것이며, Exp(B)도 1 보다 작게 되어 승산에 부(-)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홍세희 2008, 44).

6) 변화 백분율을 계산해 보면, $\Delta\% = 100(\exp(b)-1) = 435$ 가 되어 한국국민의 승산이 미국국민의 그것보다 435%가 높다.

먼저 세계화 수준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국가별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2.96 수준이고, 한국 2.96, 미국 2.81, 일본 3.0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4개국에 대한 인식수준을 통계적으로 그룹핑해 보면,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은 한국과 중국이 같은 중간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 팩스아메리카나로 대표되는 미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의외의 결과이고, 중국은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국민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6〉 국가별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ig.	비고
한국	1,200	2.96	0.63	28.36	0.00	B
중국	1,454	2.96	0.58			B
미국	1,185	2.81	0.81			C
일본	851	3.08	0.47			A
합계	4,690	2.94	0.65			

주) 비고의 Alphabet은 ANOVA분석 option에서 Duncan과 Scheffe 방식에 의한 grouping 결과

두 번째로 자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수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별 국가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3.39 수준이고, 한국 3.16, 미국 3.60, 일본 3.2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은 중국, 일본, 한국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국민들이 다른 국가 국민에 비해 국가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7〉 국가별 국가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식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ig.	비고
한 국	1,200	3.16	0.54	146.00	0.00	D
중 국	1,764	3.39	0.56			B
미 국	1,186	3.60	0.55			A
일 본	1,032	3.27	0.47			C
합 계	5,182	3.36	0.56			

주) 비고의 Alphabet은 ANOVA분석 option에서 Duncan과 Scheffe 방식에 의한 grouping 결과

세 번째로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 수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3.27 수준이고, 한국 3.07, 미국 3.18, 일본 3.1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중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8〉 국가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식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ig.	비고
한 국	1,200	3.07	0.54	31.71	0.00	C
중 국	1,744	3.27	0.55			A
미 국	1,188	3.18	0.63			B
일 본	997	3.18	0.43			B
합 계	5,129	3.19	0.55			

주) 비고의 Alphabet은 ANOVA분석 option에서 Duncan과 Scheffe 방식에 의한 grouping 결과

마지막으로 공동체 소속감 보다는 개인성 인식수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별 독자적 개인으로서의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3.15 수준이고, 한국 2.83, 미국 2.70, 일본 3.1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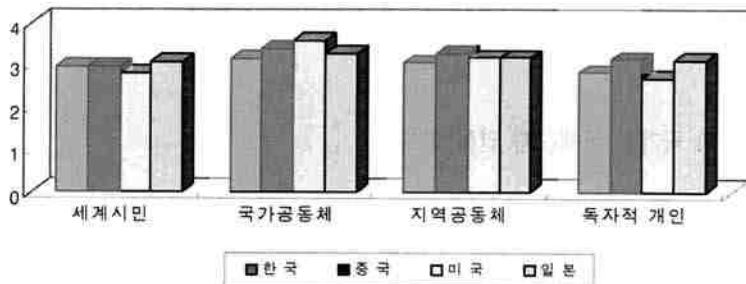
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 중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9〉 국가별 독자적 개인으로서의 인식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ig.	비고
한국	1,199	2.83	.781	113.88	0.00	B
중국	1,589	3.15	.666			A
미국	1,140	2.70	.842			C
일본	904	3.12	.565			A
합계	4,832	2.96	.749			

주) 비고의 Alphabet은 ANOVA분석 option에서 Duncan과 Scheffe 방식에 의한 grouping 결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수준과 이와 상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는 국가공동체로서의 소속인식 수준을 국가별로 정리하면,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수준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가공동체로서의 소속인식 수준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과 국가공동체로서의 인식은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그림 1] 국가별 국민 소속의식 비율 분포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와 소속인식과의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보면,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과 국가공동체로서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은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반면 국가공동체로서의 인식은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둘은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에 대해서 상반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의 경우 승산비가 1.41로서 자신이 세계시민의 일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새천년발전목표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1.41배 높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과는 반대로 국가공동체로서의 인식의 경우는 자신이 국가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새천년발전목표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10〉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와 소속인식과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B	S.E	Wald	df	Sig.	Exp(B)
세계시민	0.34	0.08	15.15	1	0.00	1.41
국가공동체	-0.44	0.10	19.18	1	0.00	0.64
지역공동체	0.05	0.11	0.25	1	0.61	1.05
독자적 개인	0.04	0.06	0.40	1	0.52	1.04
상 수	-1.87	0.35	27.36	1	0.00	0.15

-2LL=3011.44, $\chi^2=35.67$, $df=4$, $p<0.001$

3) 국가별 국제문제 인식 분석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국가별 인식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문제, 여성에 대한 편견, 불결한 위생문제와 전염병, 불충분한 교육, 환경오염 중에서 한·중·미·일 4개국 국민들은 공통적으로 빈곤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오염, 불결한 위생문제와 전염병, 불충분한 교육, 여성에 대한 편견 등의 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한 답변비율은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공통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빈곤문제의 경우 중국이 54.3%로 가장 높은 답변비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일본은 42.7%로 상대적으로 낮은 답변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하다고 한 환경오염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 44.4%가 이를 지적한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6.6%에 그치고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심각하다고 한 불결한 위생문제와 전염병에 대한 답변비율에서도 상당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3.4%의 국민들이 지적한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6.9%의 국민만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표 11〉 국가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

	한 국	중 국	미 국	일 본	합 계
빈곤문제	576	816	639	455	2486
	48.0%	54.3%	53.1%	42.7%	50.0%
여성에 대한 편견	30	58	44	19	151
	2.5%	3.9%	3.7%	1.8%	3.0%
불결한 위생문제와 전염병	89	171	282	74	616
	7.4%	11.4%	23.4%	6.9%	12.4%
불충분한 교육	23	201	159	44	427
	1.9%	13.4%	13.2%	4.1%	8.6%
환경오염	482	256	79	473	1290
	40.2%	17.0%	6.6%	44.4%	26.0%
합 계	1200	1502	1203	1065	4970
	24.1%	30.2%	24.2%	21.4%	100.0%

$$\chi^2 = 811.19, df = 12, p < 0.001$$

한·중·미·일 4개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빈곤문제의 경우를 사례로 그렇다면 해당국가 지도자들은 해당국가가 국내의 빈곤문제와 세계의 빈곤문제 중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지수준을 국가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국내의 빈곤문제 해결보다는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지지할수록 세계화 인식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국가별 국내지도자의 우선순위 지지 결과를 보면, 일본이 3.64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3.01 수준으로 중간단계, 중국과 한국은 2.71~2.67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별 국내지도자의 우선순위 지지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12〉 국가별 국내지도자의 우선순위 지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ig.	비고
한국	1,200	2.67	1.81	48.36	0.00	C
중국	1,653	2.71	2.43			C
미국	1,199	3.01	2.15			B
일본	1,049	3.64	2.15			A
합계	5,101	2.96	2.20			

주) 비교의 Alphabet은 ANOVA분석 option에서 Duncan과 Scheffe 방식에 의한 grouping 결과

이런 결과는 국내의 빈곤문제와 세계의 빈곤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도자들의 우선순위 지지수준이 세계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와 국내지도자의 정책우선 지지와의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보면, 국내지도자의 세계 빈곤문제 정책우선 지지가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에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능

성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표 13〉 새천년발전목표와 국내지도자 우선순위 지지와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B	S.E.	Wald	df	Sig.	Exp(B)
우선순위 지지	0.03	0.02	3.12	1	0.07	1.03
상 수	-2.22	0.07	797.39	1	0.00	0.10

-2LL=3279.64, $\chi^2 = 3.04$, $df = 1$, $p > 0.05$

V. 결 론

여기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과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가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국민의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수준은 미국국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각국 국민인식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세계화가 먼저 진행된 미국이 그렇지 않은 중국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국민과 미국국민의 세계화 인식수준은 특별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계시민이라는 인식이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인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국가공동체로서의 인식은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세계화 관련 소속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

인다. 즉, 세계시민임을 자각하는 경우 세계화에 대한 의식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국가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각하는 경우에는 세계화에 대한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문제에 대한 국가간 인식에 있어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중·미·일 4개국 국민들은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빈곤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각국 국민인식 수준은 세계화 관련 문제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이 일정 정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지도자의 정책 우선순위 지지와 새천년발전목표 인지와는 통계적으로는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수준 사례만을 가지고 해당국가 국민들의 세계화 의식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중국국민들의 세계화 관련 국민의식이 낮지 않다고 한다든가 미국국민들의 국민의식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국민들의 세계화 관련 국민의식 수준이 미국국민들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

이런 사실에 대한 배경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국가 국민의 국가자부심이 세계화와 관련한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국가자부심이 강한 국민일수록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국가자부심과 관련하여 진행된 국제비교 연구결과이다(Smith 외 2001; 김재은 2005; Smith 외 2006). 이런 연구결과를

7) 해당국가 국민들이 얼마나 새천년발전목표(MDGs)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는 정부와 미디어, 공교육에서 얼마나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해당국가의 대국민홍보 및 언론보도의 빈도와 양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이 곧 세계화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세계시민의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세계시민의식도 다양한 공공교육과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노력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면, 현재 세계최강이라는 미국의 경우 국가자부심이 1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력 2위인 일본의 경우와 10위 수준인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국가자부심이 낮은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세계관 심사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은 국제협력과 세계화라는 부문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식민지 경험이나 한반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느끼는 한국국민의 한계인식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현재 전수방위에 한정되는 등의 평화헌법체제에서 느끼는 일본국민들의 의식들은 상대적으로 해당국가 국민들의 국민자부심을 낮게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경향은 국민자부심과는 반대로 세계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화에 있어 후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중국국민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즉, 세계화에 있어서는 비록 늦게 출발하였지만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식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 등 환경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식과 실제적인 국민행동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즉, 미국국민이 국제문제에 있어 실제로 접근하는 행태와 중국국민들의 실제 행태와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의식은 행동하는 의식에 비해 그 가치와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한 시사점으로 중국이 현재의 미국처럼 새로운 세계협력을 담보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거론할 수 있겠다. 중국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진하는 동력이라는 점과 중국이 이미 일정한 지위에 올라섰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제 중국이 더 많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글로벌 헤게모니를 쥐려면 국제사회의 빈곤, 여성, 위생, 교육, 환경 등 각종 현안들에서 강력한 실천력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의 중심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즉, 중국의 현실은 자유, 민주, 인권 등 세계가 공유하는 보편가치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고, 이러한 사실이 중국국민들의 세계화 의식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동에서의 한계를 유발한다고 본다. 중국의 민주주의 결여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제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다른 국가들이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국제사회 평화협력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보다 증진되어 '새천년발전목표' 등 국제사회의 약속들이 잘 지켜져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투 고 일 : 2009년 6월 24일]

[심사완료일 : 2009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 2009년 7월 28일]

참고문헌

- EBS<동과서> 제작팀·김명진. 2008. 『동과서』. 서울: 위즈덤하우스.
- 고성빈. 2006. “중국지식계의 담론에서 고찰한 정치체제변화의 전망.” 『대한정치학회보』14(1).
-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권혁용. 2007.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고용상태 평가.” 『한국정치학회보』41(2).
- 김수희. 2002. “세계화에 대한 러시아의 윤리관.” 『한국동북아논총』24(1).
- 김왕근. 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28(1).
- 김은정·박양규·박중재. 2002. 『SPSS 통계분석 10』. 서울: 21세기사.
- 김인춘. 2004. “위기 이후의 발전국가와 국가정체성: 한국, 중국, 일본.” 『세계지역연구논총』22(1).
- 김재은. 2005. “한국인의 국민의식.” 『중앙일보』(3월 15일).
- 김호정. 1996.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삼영사.
- 박상수·서운석. 2008.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민의식 변화 분석.” 『아시아연구』11(2).
- 변창구. 2001.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ASEAN+3 협력구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9(1).
- 성경룡. 2001. “세계화의 딜레마.” 『한국사회학』35(2).
- 손철성. 2008. “헤의 원조의 의무에 대한 윤리적 고찰.” 『윤리교육연구』17.
- 양승태. 2007. “폴레랑스, 차이성과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 『정치사상연구』13(1).
- 제프리 D. 삭스(김현구 역). 2006. 『빈곤의 종말』. 파주: 21세기북스.
- 지은림·선광식. 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39(4).
- 한경구. 2004. “현대 일본인의 시간과 공간 인식의 변화.” 『사회과학연구』17.
- 한국국제협력단. 2004. 『2003년도 국제협력단 연보』.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6. 『2005년도 국제협력단 연보』.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 홍두승. 2005. 『사회조사분석』. 서울: 법문사.
- 홍성민. 2002. “정체성과 국제정치: <문명충돌론>의 정치사회학적 이해.” 『국제정치논총』42(1).
- 홍세희. 2008.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파주: 교육과학사.
- 한겨레. 2009. “개혁 30년 만에 미국 맞수 우뚝.” (1월 2일).

- 한겨레. 2009. “금융위기때 세계경제 지탱.” (5월 15일).
- 한겨레. 2009. “외교·군사력 결합 ‘스마트파워’ 전면예.” (1월 15일).
- Evans, M. & Kelley, J. 2002. “National Pride in the Developed World: Survey Data from 24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3).
- Hopkins, N. & Murdoch, N. 1999. “The Role of the ‘Other’ in National Identit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2).
- Jones, F. L. & Smith, P. 2001.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y Review*. 17(2).
- Smith, T. W. and Jarkko, L. 2001. *National Prid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Smith, T. W. and Kim, S. 2006. “National Pride in Comparative Perspective: 1995/96 and 2003/04.”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 UNITED NATIONS. 2008.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Wang, Y. W. 2007. “Seeking China's New Identity: The Myth of Chinese Nationalism.” 『비교문화연구』11(1).
- 高柏園. 2002. “儒家化: 東亞化與全球化.” 『동아인문학』2.
- 廖小平·成海鷹. 2005. “改革开放以來中國社會的價值觀變遷.”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6.
- 廖申白·孫春晨. 1997. 『倫理新視點-轉型時期的社會倫理與道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徐貴權. 2007. “改革开放以來中國社會價值觀變化之研究透視.”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6.
- 軒傳樹. 2007. “从‘主导’到‘主流’-试析落实科学发展观的制度支撑.” 『中国特色社会主义研究』3.
- <http://www.un.org/millenniumgoals>(검색일: 2009. 6. 1)
- <http://www.undp.org/mdg/basics.shtml>(검색일: 2009. 6. 1)
-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index.htm>(검색일: 2009. 6. 1)
- <http://www.worldvaluessurvey.org>(검색일: 2009. 2. 2)

An Study on Globalizational Assessments of the Chinese: Focus upon Recognition of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UH Woon-Seok

Researcher,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At the Millennium Summit in September 2000 the largest gathering of world leaders in history adopted the UN Millennium Declaration, committing their nations to a new global partnership to reduce extreme poverty and setting out a series of time-bound targets, with a deadline of 2015, that have become known a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MDGs are basic human rights-the rights of each person on the planet to health, education, shelter, and security. MDGs can be achieved if immediate steps are taken to implement existing commitments. Reaching its goals for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is not only vital to building better, healthier and decent lives for millions of people, it is also essential to building enduring global peace and security.

This paper put to use world values survey 2005 official data and attempted to analyze the degree of recognition on MDGs among China, USA, Korea and Japa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recognition on MDGs differed according to nation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n MDGs in China higher than that of USA.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cognition as world citizen and the recognition as a member of a nation was significant

variables that explain the degree of recognition on MDGs. So the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degree of globalization on China is not lower than that on USA.

Key Word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lobalization, National Attitude, China, USA, Korea, Japan.